

평화·번영·통일... 백두산에서 보내온 '한가위 선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오전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손잡고 백두산 올라... 2박3일 방북일정 마치고 귀환

남북 정상이 20일 백두산 정상에서 두 손을 맞잡았다. 남북 정상이 함께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3·4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전 7시27분 평양 순안공항에서 공군 2호기를 타고 오전 8시20분 삼지연 공항에 내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는 삼지연공항에서 문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차량을 타고 삼지연 공항을 떠난 남북 정상 부부는 정상인 장군봉까지 향했다. 장군봉에 도착한 두 정상은 천지를 배경으로 활짝 웃으며 맞잡은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며 김정숙·리설주 여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 첫걸음이 시작됐다. 이 걸음이 되풀이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라며 "남쪽 일반

국민들도 백두산으로 관광 올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오늘은 적은 인원이 왔지만 앞으로는 남측 인원들, 해외동포들 와서 백두산을 봐야지요"라며 "앞으로 북남 간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나가야겠다"라고 화답했다.

특히, 공식수행원으로 백두산에 함께 오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번에 서 울 답방 오시면 (김 위원장을) 한라산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제안하자 문 대통령은 "어제, 오늘 받은 환대를 생각하면, 서울로 오신다면 답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진다면

남북 정상이 한라산에 오르지 않는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남북 정상은 이어 오전 10시 10분 케이 블카를 타고 10시 20분께 마침내 천지에 발을 디뎠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천지는 깊고 푸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당 초 남북 정상은 장군봉까지 갈 계획은 정해졌지만 천지 방문 여부는 날씨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었고 기상이 좋아 천지까지 방문했다.

백두산에서 내려온 문 대통령 내외는 김 위원장 부부와 함께 삼지연 초대소에서 오찬을 가진 것을 마지막으로 2박 3일간의 북한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5시36분께 서울로 귀환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임동욱 기자 tuim@

풍성한 추석 되세요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	☀	☀	☁	☀	☀
	20/24	19/27	15/25	15/25	13/25	14/25

추석특집 지면 안내



- 불황에 나눔 실천 편의점주 ▶7면
- 광주비엔날레·수목비엔날레 ▶10면
- 마을 문화 가꾸는 젊농회 ▶11면
- 한가위 극장가 ▶12면
- 도서관 문화를 품다-유럽 ▶13면
- 한가위 특집 ▶14~23면
- 한가위 TV·하이라이트 ▶25~27면

추석 특집 32면 발행 24~26일자 신문 쉽니다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18 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2018

상상된 경계들

IMAGINED BORDERS

9.7—11.11

2018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은 43개국 165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오늘날 심화되고 있는 국가, 세대, 민족 간의 이분법적인 경계를 넘어 복잡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굳건해지고 있는 경계들에 대한 재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11명 큐레이터의 7개 전시로 꾸며지는 주제전과 광주의 역사성을 반영한 장소특정적 신작 프로젝트인 'GB커미션', 해외 우수 미술기관 참여의 위성프로젝트인 '파빌리온 프로젝트'로 구성되면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비롯해 광주 전역을 동시대 시각 문화 현장으로 펼쳐냅니다.

장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 광주시내 일원
주최·주관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

www.gwangjubennale.org

NAVER NAVER 문화재단
ISU 이수그룹
광주신세계
대한유화주식회사
영무예다음
Kolon Motors